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 D-4

우리도 함께 씩~씩

호남 최대의 자전거 축제인 2009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가 오는 14일 금요일부터 17일 주자장에서 스타트 총성을 울린다. '녹색성장의 아이콘' 자전거 문화를 확산시키고 가족·동호인들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동호회를 소개한다.

50~100km 도로타며 '행복질주'

영진MTB

두바퀴로 달리는 쾌감과 스릴을 만끽하며 1주간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 보낸다.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자전거 모임을 결성한 단체. 1996년 12월 당시 광주시사이클 연맹 전무이사를 맡고 있던 김영진(56)씨가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경륜선수들의 동계 훈련을 위해 '광주마운틴바이크회'라는 이름으로 창단했다가 이후 산악자전거가 널리 보급되면서 '영진MTB'로 명칭을 바꾸고 일반 동호인들과 함께 활동하기 시작했다.

하나된 마음 사회 봉사행렬로

현재 회원은 41명으로 정회원 16명, 준

회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 중 끝수파(?)들은 평일 저녁에 일곡지구 한세봉과 무등산장 등을 달리고, 일요일 오전엔 광주 근교로 나가 50~100km의 도로나 경사가 완만한 산길을 탄다. 즐겨찾는 코스는 화순 운주사에서 장흥 유치간 임도를 지나 영암 금정면 일대까지 돌아오거나, 장성 축령산·고창 문수산·보성 주월산·광양 백운산·지리산 등도 찾는다. 특히 초보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날은 광주전남 자전거 도로와 화순 너릿재 옛길 언덕을 넘어 무등산 주위를 도는 비교적 쉬운 코스를 택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라이딩 중 오르막이나 험준한 산길을 오를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회원간 돈독한 동료애를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쌓여진 영진MTB의 하나된 마음은 봉사활동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2007년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팬텀사이클대회에 참가해 파트너가 되어주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김민진 차세대 MTB꿈나무

회원들의 기량도 뛰어나다. 특히 12세 김민진(사창초 5년)군은 아버지와 같이 라이딩을 즐기고 있는 최연소 회원이면서 기량도 뛰어난 차세대 MTB꿈나무로 성장하고 있다. 김 군은 전남도지사배·영암월출산배 등 도내 대회는 물론 삼천리배·함백산 힐클라임 등 전국 유명대회에서도 우수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또 김 군은 지난 여름



사이클 선수를 모심으로 시작해 이젠 동호인 모임으로 바뀐 영진MTB는 건강증진·친목도모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과 함께 라이딩을 즐기는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무박 2일의 지리산 울트라 헬리에 최연소로 출전해 150km 산악코스를 아버지와 함께 완주하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다. 김민진

외에도 김응대·박진석·이선종 회원도 화려한 입상 경력을 갖고 있다. 앞으로 2박3일의 장거리 라이딩도 계획

하고 있는 영진MTB의 하나된 질주가 힘입어 계속 되길 바란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노장 李 日 잠재워주마

(대진)



요미우리전 선발 양현종 이어 출격 '폭포수 커브'·노련미로 타선 봉쇄

'백전노장' 이대진의 도전은 계속된다. KIA 타이거즈가 오는 14일 일본 나가사키에서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한일 챔피언시리즈를 치른다. 마운드 최고참으로 후배들을 이끌고 있는 이대진은 필승을 다짐하며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대진은 7일 남해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연습경기에서 6회 마운드에 올라 구위를 점점했다. 이날 이대진은 특유의 '폭포수 커브'와 노련함으로 세 타자를 연속해서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관람석의 팬들은 마운드를 내려오는 노장 투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줬다. 이강철 코치는 "내년 시즌에는 선발로 뛰어도 좋겠다"는 말로 이대진의 투구에 찬사를 보냈다. 1.5군과의 경기였지만 이대진은 지난날 한국시리즈 이후 첫 실전등판에서 깔끔한 모습을 보이며 KIA 투수진중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회는 친선전 성격이 강하지만 한

일의 자존심이 걸린 만큼 양팀 모두 승리에 대한 각오가 남다르다. 선발로 양현종이 내정되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경험많은 이대진이 조기에 투입될 수도 있다. 1997년 팀의 9번째 우승 당시 1선발로 나서 2승을 챙겼던 이대진은 12년만에 다시 우승 무대에 올랐다. 마운드 최고참 이대진은 비록 이번 우승 드라마에서는 주연을 맡지 못했지만 당당한 조연으로 어린 후배들과 우승의 기쁨을 함께 했다. 팀이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2009년은 개인적으로도 각별하다. 이대진은 시즌 초반 무섭게 성장한 후배들에 밀려 2군에 머물렀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킨 끝에 데뷔 17년만에 통산 100승의 감격을 누렸다. 부상이 아니었다면 손쉽게 달성할 수 있었던 100승이었다. 입단 첫해인 1993년 10승을 달성했던 이대진은 다음해에는 7승을 추가했다. 1995년 14승을 시작으로 4년 연속 두자릿 승수를 올리며 데뷔 후 6년 동안

76승을 쌓았다. 1998년에는 프로야구계에 전무후무한 10타자 연속 삼진이라는 대기록도 썼다. '에이스 오브 에이스'로 군림했던 이대진이 지독한 부상에 발목이 잡히지 않았다면 일본은 제2의 야구 무대가 될 수 있었던 곳이다. 이대진은 올 시즌이 끝나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지만 확실한 선수생활이 더 중요한 만큼 FA대신 KIA를 선택했다. 내년 시즌에 대한 자신감도 넘친다. 투구시 스트라이드 폭을 넓힌 이대진은 하체를 이용한 피칭으로 구위를 향상시켰다. 무엇보다 짧은 투수일 일색인 KIA 마운드에서 풍부한 경험은 백전노장의 큰 자산이다. 부상의 공포에서 벗어나 일본 장정에 오르는 이대진에게는 특별한 2009년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현지 '1박2일' 연장 끝 첫 우승

한국여자마스터즈 정상

'대관 소녀' 김현지(21·LIG)가 대신증권-토마토투어 한국여자마스터즈에서 이틀간 연장 혈투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김현지는 9일 제주도 사이프러스 골프장(파72·6천410야드)에서 열린 연장 두 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유소연(19·하이마트)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2006년 프로에 데뷔한 김현지는 지난해 6월 비씨드 클래식과 10월 가비아 인터볼고 마스터즈 2위에 올랐을 뿐 그동안 우승컵과 인연이 없었다.

전날 첫 번째 연장까지 승부를 내지 못하고 이날 아침까지 기다린 둘은 세 번째 샷에서 승부가 갈렸다. 먼저 세 번째 샷을 날린 유소연이 홀 3m 정도에 공을 떨어 기선을 잡는 듯했지만 김현지가 기다렸다는 듯 1m 정도에 바깥 공을 붙이며 오히려 유소연을 압박했다. 5일 두산매치플레이 대회에서 9차 연장 끝에 우승하는 등 연장에 강한 면모를 보인 유소연은 부담감을 안고 버디 퍼트를 시도했으나 홀 오른쪽에서 아쉽게 공이 멈추는 바람에 고개를 떨쳤다. 김현지는 이어 챔피언 퍼트를 침착하게 성공하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공동 개최한 이번 대회 우승 상금 6만 달러를 손에 넣었다. 공동 2위를 차지한 유소연은 상금 2만9천250달러를 받았으나 삼군 부문 선두인 서희경(23·하이마트)도 단독 4위 상금 1만5천달러를 차지해 간격을 좁히는 데 만족해야 했다. 서희경은 6억375만원, 유소연은 5억9천385만원이 돼 20일부터 열리는 시즌 마지막 대회인 ADT 캡스 챔피언십에서 상금왕을 가린다. 둘은 나란히 4승으로 다승 부문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어 다승왕도 마지막 대회에서 향방이 가려진다. /연합뉴스

신지애·최나연·서희경 등 韓·日대항전 출전

12월 4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키나와 류큐 골프장에서 열리는 코라쿠컵 제10회 한일여자프로골프대항전(총상금 6천150만엔)에 출전할 대표 선수 13명이 확정됐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와 일본여자프로골프협회(JLPGA)는 9일 각각 대표 선수 13명을 발표했다. 한국 대표팀은 신지애(21·미래에셋), 김인경(21·하나금융), 최나연(22·SK텔레콤), 지은희(23·힐라코리아), 유선영(23), 전미정(27·진로제팬), 이지희(30·진로제팬), 송보배(23), 임은아(26·GOLF5), 서희경(23·하이마트), 유소연

(19·하이마트), 이정은(21·김영주골프), 이보미(21·하이마트) 등으로 구성됐다. 최나연과 지은희는 JLPGA 퀘리파인스쿨에 나설 계획을 접고 한일전에 출전하기로 했고 이보미는 안선주(22·하이마트)가 JLPGA 퀘리파인스쿨에 출전하면서 대타로 출전권을 획득했다. 김인경, 유선영, 임은아, 이정은, 이보미 등 5명은 한일전에 처음 출전한다. 주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이지희가 맡았다. 지금까지 전적은 4승1무3패로 한국이 앞서 있다. /연합뉴스

김인식 전 감독 일구대상 KIA 김상현 최고 타자상

지난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대표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김인식(62) 전 한화 감독이 프로야구인 모임인 일구회(회장 이재환)가 주는 일구대상을 받는다. 일구회는 7일 '2009 마구마구 일구상' 수상자를 확정해 발표했다. 일구회는 WBC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용병술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위대한 도전 정신을 일깨워 준 김인식 전 감독을 만장일치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고 타자상은 KIA의 우승 주역인 김상현, 최

고 투수상은 롯데를 포스트시즌으로 이끈 조정훈이 받는다. 각축을 벌인 최고신인상은 16홀드를 올려 두산 계투진에 큰 힘을 보탠 고창성이 수상한다. 메이저리그에서 20홈런·20도루를 달성해 국위를 선양한 추신수(클리블랜드)는 특별상을 받는다. 2009 마구마구 일구상 시상식은 12월10일 오전 12시부터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리고 케이블 스포츠채널 SBS 스포츠를 통해 전파를 탄다. <2009 마구마구 일구상 수상자



<김인식 전 감독> <김상현 선수>

▲일구대상 = 김인식 전 감독 ▲최고 타자상 = 김상현(KIA) ▲최고투수상 = 조정훈(롯데) ▲최고신인상 = 고창성(두산) ▲의지노력상 = 강동우(한화) ▲코치상 = 윤석환(두산) ▲프린트상 = 한국야구위원회(KBO) 홍보팀 ▲심판상 = 문순훈 KBO 심판위원 ▲특별상 = 추신수(클리블랜드) ▲아마지도상 = 고조성욱 동의대 감독 ▲공로상 = KBS 천하무적 야구단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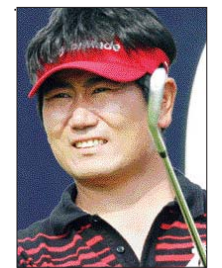
야구인들 샷 대결

23일 골프대회 개최

한국야구위원회(KBO·총재 유영구)는 오는 23일 경기도 남양주 해비치 골프장에서 2009 CJ마구마구 프로야구 우승팀 KIA 타이거즈의 후원으로 제28회 야구인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하던 때부터 매년 각 구단 감독, 코치, 선수들과 프런트, 미디어 등 야구 관계자들이 참가해온 이 대회는 오전 9시에 전 홀에서 동시 티오프하는 샷간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페리오 방식으로 순위를 가린다. 대회 참가비는 23만5천원이며 우승, 메달리스트, 준우승, 3위상, 통기스트, 니어링스트, 행운상 등을 준다. 참가 신청은 13일 오후 5시까지 KBO 홍보팀(02-3460-4631~4)에서 받는다. /연합뉴스

아시안프로골프투어 양용은 명예회원 가입

아시아 최초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한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시진)이 아시아프로골프투어 명예 회원이 됐다. 아시아프로골프투어는 9일 "양용은이 명예 회원 직을 수락해 4번째 명예 회원이 됐다"며 "아시아 골프에 큰 업적을 이룩하거나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는 명예 회원 자격은 최경주(39·나이키골프)·비제이 심(피지)·지브 밀카 심(인도) 등 세 명이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아시안투어 회원이기도 했던 양용은은 아시아프로골프투어를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명예 회원 자격을 받아 영광이다. 아시안투어는 나에게 해의 무대 진출의 발판이 된 곳"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길라 한 아시안투어 회장은 "우리 투어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양용은처럼 세계적 수준의 선수를 키워내는 것"이라며 "지금 투어에서 뛰는 선수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양용은의 명예 회원 가입을 반겼다. /연합뉴스